

미국 영화 관람료 인상의 주요인은 3D, 적정 수준 놓고 업계 의견 분분

2011. 8. 8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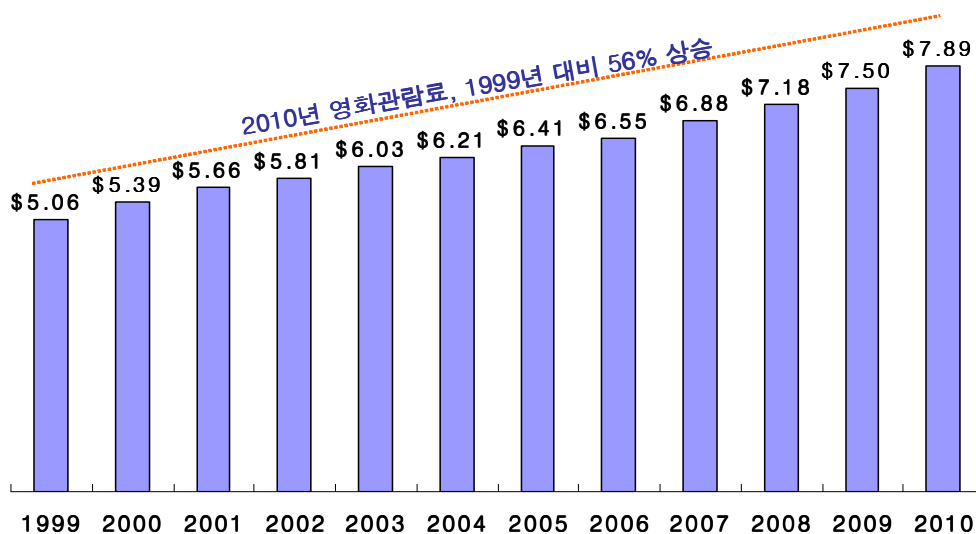
2010년 이후 3D 열풍이 미국 영화 관람료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할리우드 관계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극장주들이 '아바타(Avatar)'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기대하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관람료 인상은 매출 유지를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Briefing

美 영화업계, 3D 영화 관람료 인상에 대한 상반된 견해 제시

- 미국 극장주연합회(NATO)에 따르면, 1999년 5.06달러에 불과했던 미국 평균 영화 관람료가 2010년 기준 7.89달러(약 8,300원)를 기록해 무려 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1999년 이후 영화 관람료 인상률은 일반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영화 관람객 수는 10% 가까이 감소했으며,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면 실제 관람객 수는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Figure 1 연도별 미국 평균 영화 관람료 및 인상률(1999년~2010년)



자료: NATO(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2011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영화 관람료	\$5.06	\$5.39	\$5.66	\$5.81	\$6.03	\$6.21	\$6.41	\$6.55	\$6.88	\$7.18	\$7.50	\$7.89
전년 대비 인상률	8.3%	6.1%	4.9%	2.7%	3.8%	3.0%	3.2%	2.2%	5.0%	4.4%	4.5%	5.2%
미국 물가상승률 ¹⁾	2.2%	3.4%	2.8%	1.6%	2.3%	2.7%	3.4%	3.2%	2.8%	3.8%	-0.7%	1.5%

자료: NATO(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2011

- 특히 2010년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 감독의 영화 '아바타' 이후 불기 시작한 3D 영화 열풍은 영화 관람료 인상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Alice in Wonderland)'와 '아바타'의 미국 내 매출 중 3D 상영관을 통한 매출이 각각 70%와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3월 美 메이저 극장주들은 3D 상영관의 영화 관람료를 평균 8.3% 인상했음
- 영화감독 피터 잭슨(Peter Jackson)과 스티븐 스피버그(Steven Spielberg)는 지난 7월 미국 샌디에고(San Diego)에서 열린 코믹콘 2011(Comic Con 2011) 행사에 참석해 3D 영화의 완성도에 비해 관람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함
 - 최근 3D 영화의 저조한 흥행 실적의 원인 중 하나는 비싼 관람료로, 피터 잭슨은 "단순히 구색만 갖춘 3D 영화에 5달러의 추가요금을 지불할 만큼 관객들은 어리석지 않다"고 주장했음
- 반면, 드림웍스 애니메이션(DreamWorks Animation)의 CEO 제프리 카젠버그(Jeffrey Katzenberg)는 올해 큰 성공을 거둔 영화 쿵푸팬더2(Kung Fu Panda 2)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객들은 우수한 3D 영화에 추가 요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함
 - 또한 美 메이저 극장주들의 3D 영화 관람료 인상은 3D 상영관 부족으로 3D 영화의 박스 오피스 매출을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주장했음
- 한편, 극장주들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3D 영화 관람료와 2D 영화 관람료의 가격 차이는 3달러에 불과하고, 이중 영화관이 차지하는 몫은 1.5달러인데, 이마저도 리얼 D(Real D)와 같은 3D 기술 장비 업체에서 지불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이윤은 거의 없다고 주장함

1)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기준

Analysis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3D 영화 관람료는 궁극적으로 박스 오피스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BTIG 리서치(BTIG Research)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77%가 3D 영화 관람을 위해 4달러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는 않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3D 영화의 관람료 인상은 3D 영화의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4인 가족이 3D 영화를 감상할 경우 약 60달러(약 6만 4,000원)의 비용이 소모되어 가계 살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3D 영화의 가격 인상은 비교적 저렴한 레저 수단으로 각광받아왔던 영화의 효용성을 저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3D 영화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과 극장 체인 및 배급/제작사가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수준 사이에서 3D 입장료가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Source

1. New York Times, 'Chargin a Premium for Movies, at a Cost', 2011. 7. 31
<http://www.nytimes.com/2011/08/01/business/media/as-ticket-prices-rise-theater-audiences-shrink.html?pagewanted=1&r=2>
2. 3DTV.com, 'Steven Spielberg, Peter Jackson Attack High 3D Ticket Prices, Studio Abuse', 2011. 7. 26
<http://www.3dtv.com/news-reviews/news/steven-spielberg-peter-jackson-attack-high-3d-ticket-prices-studio-abuse.php>